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성경: 계 3:7-13, 요일 3:14

I.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형제 사랑의 교회 곧 합당한 교회생활의 회복을 예시하며, 19세기 초부터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 계 3:7.

- A. 사데 교회로 예시된 개혁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로 예시된 변절한 천주교에 대한 반응이었듯이, 형제 사랑의 교회는 죽은 개혁 교회에 대한 반응이었다 — 계 3:1, 2:18.
- B. 이 반응은 변절한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에 대한 반대 증거로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계 3:11.

II.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을 의미한다 — 계 3:7.

- A. ‘빌라델비아’에 대한 헬라어는 ‘...에 대해 애정을 갖다’와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 곧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랑이다 — 벵 후 1:7.
- B. 하나님의 표현인 경건 안에서, 우리는 형제 관계(벵전 2:17, 3:8, 갈 6:10)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요 13:34-35)와 열매 맺음(15:16-17)을 위해 이 사랑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 C.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언적으로 형제 사랑의 교회, 곧 합당한 교회생활을 묘사한다 — 계 3:7.
 - 1. 형제 사랑의 교회는 죽은 개혁 교회에 대한 반응이었다.
 - 2. 형제 사랑의 교회는 19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때 영국에서 형제들이 일으켜져 분파와 분열의 조직 밖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했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계 3:11.
- D.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 요일 3:14.
 - 1.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근원, 본질, 요소, 범위에서 벗어나 생명이라는 근원, 본질, 요소,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 요 3:3, 5-6, 5:24.
 - 2. 형제들을 향한 사랑(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강한 증거이다 — 요일 3:14.
 - a.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이다.
 - b. 믿음을 갖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요 3:15).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영원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다 — 요일 5:13, 4:7.
 - c.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은 오직 참된 믿음에서만 산출될 수 있다.
 - 1)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 2) 서로를 향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느낌과 맛이 있다. 이러한 느낌과 맛은 우리가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이다.
- 3.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사랑의 본질과 요소에 의해 살지 않고, 신성한 사랑의 영역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 요일 3:14하.
- 4.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 요일 3:16.
 - a. 형제들을 위한 사랑은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자원하여 제쳐 놓는 것이다 — 갈 5:13.
 - b.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형제들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III.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계 3:7.

- A.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회복된 교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분별되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다.
- B.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주님은 또한 다윗의 열쇠, 곧 왕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로서, 열고 닫는 권위가 있으시다 — 계 3:7, 사 22:22.
 - 1. 이 열쇠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다윗의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의 보고(寶庫)의 열쇠이다 — 사 39:2, 삼하 7:16.
 - a.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이다 — 딤후 3:15, 마 16:18-19, 롬 14:17.
 - b.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보고,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엡 3:8.
 - 2.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을 위해 온 우주를 열어 준다 — 사 22:22, 계 3:7.
 - a. 더 위대한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고, 하나님의 왕국, 곧 그분께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시어 하나님을 대표하는 통치 영역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 마 1:1, 12:3-8, 16:18-19.
 - b.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 골 1:15-18.

IV.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계 3:8.

- A.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러한 주님께서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 1. 수년에 걸쳐서 주님의 회복은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체험했다.
 - 2. 19세기 초에 합당한 교회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문은 주님의 회복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3. 비록 많은 반대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회복을 대적하고 문을 닫으려고 애썼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여신 것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 B.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은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다 — 계 3:8.
1. 역사에 따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주님의 말씀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
 2. 회복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통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한다 — 비교 마 15:6하.
- C.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 계 3:8.
1.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강하고 능력 있으며 유력한 교회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2.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3. 비록 우리가 받아들인 은혜의 양이 그 분량 면에서 제한적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그것을 사용하고 쓴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 롬 12:6, 엡 4:7, 벰전 4:10.
- D.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1.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고,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이다.
 2. 회복된 교회는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의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렸다.
 3. 회복된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하며, 어떤 교파(어떤 이름)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
- E. 말씀에서 이단으로 빗나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많은 이름을 높이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표시이다 — 계 2:14-15, 20.
- F. 모든 이단과 전통에서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회복된 교회의 가장 고무적인 증거이다 — 계 3: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

적은 능력을 가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를 본다. 먼저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높게 평가하여, 이 교회가 강하고 우월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백오십 년 전에 영국에서 형제들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 모두가 다윗 같았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주님은 그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라. 강한 자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할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단순히 당신이 주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라. 주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말라. 우리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전혀 없다. 심지어 우리 중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분에게서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았다. 당신은 그 은혜를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은혜를 사용하라.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하였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네가 가진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은 거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얼마만큼의 은혜를 가진 작은 이들을 기뻐하신다. 비록 은혜가 그 분량에 있어서는 제한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빌라델비아의 뛰어난 한 가지 특색은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다. 역사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이들만큼 엄격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죄 판결하고 이단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 우리만큼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순수한 말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상들의 전통을 붙들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통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19세기 초엽 영국에서 형제들이 일으켜진 이래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취한 적이 없다.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요 이름은 주님 자신이다. 변절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단적이 되었다. 개신교는 비록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긴 했어도, 그 자신을 루터교, 웨슬레교, 국교회, 장로교, 침례교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명명(命名)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인했다. 회복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포기했다. 회복된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으며 어떤 교파들(어떤 이름들)과도 상관이 없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변절이요,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명명(命名)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리스도께 배필이 되는 순수한 처녀인 교회(고후 11:2)는 그녀의 남편 이외에 어떤 이름도 갖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다른 이름들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이다. 회복된 교회생활 안에는 발람의 가르침(계 2:14), 니콜라당의 가르침(15절), 이세벨의 가르침(20절), 사탄의 비밀스러운 교리(24절) 등이 전혀 없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주님의 말씀만 갖고 있다. 아멘! 회복된 교회는 교파들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만 갖고 있다. 말씀에서 이단들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수많은 다른 이름들을 높이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가장 현저한 표시이다. 모든 이단들과 전통들로부터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른 모든 이름을 포기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회복된 교회 안의 가장 고무적인 증거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계시와 임재를 갖고 있고, 빛이 충만하고, 생명의 풍성을 가지며, 살아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표현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등 다른 이름들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이름, 곧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있다. 어떤 이름을 취하는 것은 신중한 일이다. 가령

당신이 스미스 부인이라고 하자. 그런데 만일 당신이 존스 부인이란 이름을 갖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간음했음을 가리킨다. 교회는 오직 한 남편, 오직 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 교파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내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릅니까? 왜 당신들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장로교파라고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라면 왜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부릅니까? 당신은 스미스 부인입니까?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존스 부인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당신을 존스 부인이라고 부르고, 나를 스미스 부인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질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존스 부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들의 모든 입이 다물어졌다. 이름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 웨슬리와 동시대 사람인 조지 휘트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갖지 않겠노라고 선포한 적이 있다. 비록 휘트필드는 영국인이었지만, 영국 국교회의 이름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이름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지 않았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따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에 부가하여, 심지어 그분의 이름 위에다 다른 이름을 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취한 다른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름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름들은 분열을 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장로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나를 음행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그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그 이름을 떨쳐 버린다면, 그 즉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 안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교회 건물의 외벽에 있는 이름은 그저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자기들은 사실상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이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정직함을 그런 태도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위원회가 그들을 저지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열린 문을 가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그분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러한 주님께서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19세기 초에 합당한 교회생활의 회복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회복을 향해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조직화된 기독교가 그 문을 닫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문은 더욱더 넓게 열렸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문은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다. 그 열쇠는 반대자들의 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분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린 문을 가졌다! 지난 오십 년 동안 교파들은 이 문을 닫아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을 닫으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문을 더 여셨다. 아무도 오늘날 주님의 회복을 위한 열린 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한, 그 문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5장, 198-202쪽)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으로 제시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시며,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분별되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되고 신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시기 위해 거룩하셔야 하고 참되셔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거나 참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존재에 속한 모든 항목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신성한 분배를 위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계 3:7)이시다. 다윗의 열쇠는 열고 닫는 권위를 가진 왕국의 열쇠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열쇠’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이 권위를 잃어버렸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이 땅에서의 통치권을 다시 얻지 못했다.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위를 보지 못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들어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권위를 보지 못한다. 겐으로 보기에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다윗이 건축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어 그분을 표현하게 하셨고, 그분의 통치권을 주시어 그분을 대표하게 하셨다.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성전은 성 안에 건축되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을 상징하고, 성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한다. 창세기 1장에 계시된 형상과 통치권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성전과 성을 통해 성취되었다.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며, 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는다. 하나님의 왕은 성 안에 있었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표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이다. 다윗이 갖고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전체의 열쇠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온 우주, 특별히 인류를 포함한다. 이 통치 영역에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왕국을 위해 싸우고 성전을 위한 재료를 준비한 사람이 갖고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다.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했다. 이와 같이 그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다만 예표일 뿐 실재는 아니다. 참된 다윗은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이다(마 12:1-8).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분이시다(마 16:18-19). 그러므로 오늘날 집이자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대표를 본다.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 영역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시어 하나님을 대표하신다. 따라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 우주를 열어 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심을 상징한다.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열어 주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또한 그리스도를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열고 닫으시는데, 이는 우주의 열쇠, 하나님의 경륜의 열쇠가 그분의 손에 있

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열쇠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다루신다.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이사야서 22장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장에 있는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실 뿐 아니라 못이시라고 말한다. 이사야서 22장의 문맥을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한다(계 3:12).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영원 안에서 성전은 한 성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은 입방체이며(계 21:16), 지성소의 확대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시며,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닫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영적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축되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함과 영성은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건축된 교회를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뻔뻔한 하나님의 집을 원하시며, 이 집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김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엘리야김으로 예표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집(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집으로 예표됨—삼하 7:16)의 (보물 창고—사 39:2) 열쇠가 두어진다(계 3:7).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딤후 3:15) 하나님의 왕국이다(마 16:18-19, 롬 14:17).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어진 열쇠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보물을 지키기 위한 열쇠이며, 이 보물은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다.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체현된(골 2:9) 하나님의 풍성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못으로서 단단한 곳에 박으셨다(사 22:23상). 단단한 곳은 셋째 하늘을 예표한다(비교 고후 12:2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에 의해 셋째 하늘에까지 높여지셨다(행 2:33, 5:31). 아버지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마 6:9), 셋째 하늘에까지 높여지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높여지시는 것이다(비교 눅 15:18).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박힌 못으로서 하늘들에 계신다.

이사야서 22장 24절에서 ‘영광’은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와 동격이다. 따라서 못이신 그리스도께 걸린 아버지의 집의 영광은 하나님의 후손과 족속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그릇들이다. 이 그릇들은 그리스도를 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못이신 그분께 걸려 있다. 후손과 족속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광이고, 그들은 또한 그릇들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건축되게 하신다. 일단 우리가 건축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못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걸려 있는 그릇들이 될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결국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열쇠를 사용하시어 우리의 감옥 문을 여셨다. 교회생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옥 문을 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신 모든 문은 감옥 문이다. 비록 반대자들이 힘을 다해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열쇠에 의해 해방된다. 오늘날의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열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실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일단 그분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해방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다. 이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집에는 못이신 그리스도께 걸려 있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못이시고, 이 못에 의해 우리는 땅에서부터 위에 걸려 있게 된다.

먼저, 그리스도는 열쇠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키신다.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후에, 그분은 우리를 땅에서부터 위에 걸어 두는 못이 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기둥들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큰 못이 되셔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를 땅에서부터 위에 걸려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므로 그분께서 문을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이러한 주님은 회복된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고,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 여러 해에 걸쳐서 주님의 회복은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체험해 왔다. 19세기 초반에 합당한 교회생활의 회복이 시작된 이후로, 이 문은 주님의 회복을 향하여 넓게 열려 있다. 합당한 교회생활의 회복 시작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힘을 다해 이 문을 닫으려고 했다. 조직화된 기독교가 이 문을 닫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문은 더 넓게 열린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은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다. 열쇠는 교회의 머리이신 분의 손에 있다. 그것은 반대자들의 손에 있지 않다. 주님의 회복에 대한 반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회복을 향한 문들은 계속해서 열리며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지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비록 많은 반대자들이 주님의 회복을 공격하고 힘을 다해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분께서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열린 문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을 의미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빌라델비아’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형제 사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열린 문을 갖기 때문이다. 영향력 있는 지방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문은 결코 닫힐 수가 없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문은 더욱더 열릴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 집회에 초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와 조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그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문을 여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앞에 있다. 우리가 열린 문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4119-4204쪽)*